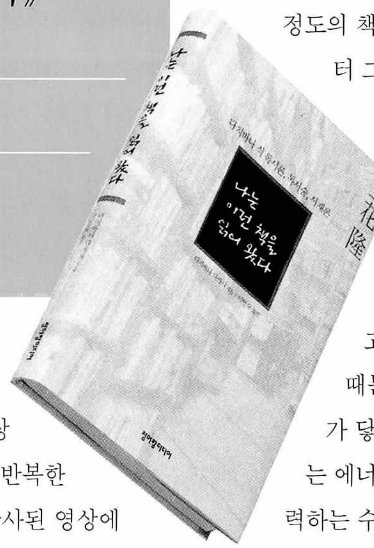
이 책은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가 들려주는 독서론, 독서술 그리고 서재론을 담았다. 그는 저널리스트답게 실용적인 독서법을 지향한다. 순차적으로 글 전체를 통독하는 '음악적 책 읽기' 와 전체에서 세세한 부분으로 좁혀가는 '회화적 책 읽기' 로 나눠 책 읽기를 설명하는데, 특히 많은 양의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회화적 책 읽기' 의 속독법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 책갈피 산책 |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

한 저널리스트가 들려주는 실용적인 독서술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 이언숙 옮김
청어람미디어/A5변형/308면/12,000원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 사람은 그 자신을 그릴 뿐 아니라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반사된 영상 속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는 일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실재보다 반사된 영상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점이다.

다치바나식 독서론, 독서술, 서재론 만날 수 있어

이런 시각이 반영돼서일까, 요즘은 신입사원이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도 '사이버 성형' 미남, 미녀들이 속속 등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사진 속 모습은 자기가 꿈꾸는 이미지일 뿐 자신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독서는 바로 이런 허구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작업이 아닐까. 즉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이 볼록거울인지, 오목거울인지 알려주는 인식의 잣대이자, 난시와 근시를 함께 교정해 줄 수 있는 다초점 렌즈다. 말하자면 독서는 자기 안의 아집과 독선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아닐까.

여기 한권의 책이 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다. 이 책은 지은이의 강연 및 잡지 원고 가운데 '책' 을 주제로 한 글들을 추려 모아 엮은 것으로 다치바나식 독서론, 독서술 그리고 서재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첫머리에 나오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명제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지적 욕구를 '실용적인 지적 욕구' 와 '순수한 지적 욕구' 의 두 범주로 나눈다. 오늘날의 문명사회는 실용적인 지적 욕구에 의해 형성됐지만, 그 바탕에는 모르는 것, 신비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지적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지의 세계' 를 구축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생산적 글쓰기로 전환한 탁월함 돋보여

다치나바의 지적 세계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그가 소유한 '고양이 빌딩' 이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빌딩은 3층 건물 전체가 서가로 꾸며진, 그렇지만 각 층 건평이 겨우 7평 정도인 아주 작은 건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그가 온 생애를 통해 이룩한 지식의 요람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이다. 그는 책 한권을 쓰면서 약 5백권 정도의 책을 읽어대는 굉장한 독서광이다.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그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엄청난 책들을 보관할 장소와 효율적인 독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의 나날이었다. 그런 그가 서고를 짓는 과정은 재밌기도 하고 때론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일반적인 장서가나 독서가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독서를 단지 책 읽기로 끝내지 않고 생산적인 글쓰기로 전환한 그만의 탁월함에 있다. 때문에 문학, 첨단과학, 음악, 의학 등 그의 관심의 촉수가 닿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그는 또 원고를 집필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을 좋은 표현을 찾는 데 소비할 만큼 노력하는 수사학자기도 하다. 그는 저널리스트답게 실용적인 독서법을 지향한다. 그는 독서법을 둘로 나누는데, 순차적으로 글 전체를 통독하는 '음악적 책 읽기' 와 전체에서 세세한 부분으로 좁혀가는 '회화적 책 읽기' 가 그것이다. 많은 양의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회화적 책 읽기' 의 속독법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다.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만의 독서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특히 그가 1966년 읽고 싶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문예춘추》를 떠나면서 남긴 '퇴사의 변' 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더라도, 만약 그것이 충분한 사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로운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봄으로써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려는 것이다." — 박옥순 기자

다음은 지은이가 회화적 책 읽기, 속독 기술의 핵심 요령을 설명한 대목이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단락 단위로 대충 훑어보고 나서 다시 훑어본다. 그렇게 일단 끝까지 읽어본 뒤 다시 한번 읽을지 생각해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마음으로 시작한 책이지만, 도중에 그만 읽고 싶어지면 단락 단위로 훑어보는 방법으로 바꾸어 어쨌든 끝까지 대충이라도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